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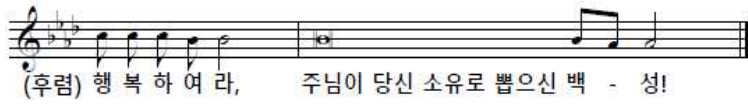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롯데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지혜 18,6-9

화답송 |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12ㄴ 참조)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3,1-5.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32-48

영성체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성가 | 입당 459

영성체 156(157)

예물준비 216(215)

파견 39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이창희 필립보
- 이호수, 한주일,
- 이영희 한나
- 이주영 사무엘
- 한주천 모니카
- 박현진 스테파노

생미사 지향

- 민선기 베드로
- 양미숙 마리아, 김효진 율리아나
- 진경란 모니카
- 김재연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다, 김민규 요셉
- 장희순 글라라, 김승애 글라라 - 축일 축하
-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헤레나의 영육 건강
- 박혜화 도미니카 영육 간의 건강
- 김가연 크리스티나 영육 간의 건강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10일	정유진	국민준	김미혜	민재인	김종선	이예진 김수현
8월 17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류유리	유정옥	조성윤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강건대 마리아(6주기) 자매님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2025년 성탄 세레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레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교리반 시간: 목요일반(7:30 PM ~)

주일반(1:30 PM ~)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일시: 8월 15일(금) 6:00PM

장소: 윗성당(upper Church)

집전: 이웅희 루카OFM *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일시: 8월 19일(화), 6:30 PM - 8:30 PM

장소: 산다미아노홀

하느님 찬양의 자리에 많은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청년여름캠프

주제: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필리2, 2)

일시: 8월 22일(금) - 8월 24일(일) 2박 3일

장소: PORT MURRAY, NJ

참가비: \$250

신청/문의: 929. 660. 4456(청년회장 진현종 빈첸시오)

청년성서모임(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OT 및 첫 모임: 9월 14일(일) 12시(장소: 다미아노홀)

대상: 세례 받은 청년

신청마감: 현재 접수중 ~ 9월 7일(일)까지

문의: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카톡: sunwouk, 714. 809. 9874)



2025 레지오 마리아

“레지오마리아”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목요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뉴욕/뉴저지 제9차 선택 주말

일시: 8월 30일(토) 10:00AM - 9월 1일(월)3:00 PM.

대상자: 1987-2003년생 청년 미혼남녀(한국어권/영어권)

장소: 뉴튼 수도원

St.Paul's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275 (\$50 non-refundable deposit)

신청: www.choicenynj.com (7/7-7/27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choicenynj@gmail.com

[알림] 오래된 성상(small size), 묵주 등 처리하기 곤란한 것 성당으로 가져오세요.

단, 성상 크기가 큰 것은 신부님과 상의 필요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옥토

WONJ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clearlas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말씀의 이삭

죽은 개가 데려온 곳



황유지 사라 | 문학평론가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이 2018년이니, 신앙에 있어서는 그 발걸음이 아직 어린아이의 처지입니다. 제가 성당의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는, 개의 죽음입니다.

어느 집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듯 저희 가정에도 불행이 닥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키우던 개 해피는 그전에도 아버지를 잘 따랐지만 투병동안에도 틀림없이 좋은 벗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개 끄트머리에 함께 누워 자는가 싶더니 한참 지나서 보면 아버지의 머리는 맨바닥에 있고 베개는 개의 침대가 되곤 하는 식이었지만, 그런 장면은 아버지의 캄캄하고 고독한 침상을 내내 홀로 이지만은 않도록 지키는 이가 해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이르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해피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비를 잃은 제 슬픔에 겨워 배우자를 잃고 개를 건사할 기운조차 없었을 어머니의 슬픔을 가늠할 겨를은 없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건네는 개를 되도록 힘껏 껴안았습니다.

해피가 열 살 되던 해 그렇게 저는 그의 주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가계를 돕는 동시에 제 생계를 꾸리며 대학원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서 저는 휘청였습니다. 우울증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구요. 그 동안에 제가 해피를 제대로 돌본 것이 맞을지, 그건 고스란히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개는 스무 살이 넘었고 제가 겨우 우울의 검은 외투를 벗어 던졌을 때 나의 개는 자신의 시간으로는 너무도 길게 버티었기에 그만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피가 떠나자 집은 제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사랑하던 이와 이별하면 그곳에 다시 가기 어렵다지만, 이 경우는 집이니 당장에 집을 헨 옷 내던지듯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제 발걸음은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성당 건물을 빙빙 돌곤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다 하느님의 부름이실까요? 때마침 성당에는 신입 성도를 모집하는 팸플릿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서성이던 성당의 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종교는 삶을 초월하는 것이면서도 삶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기도 할 테니, 제가 개의 안녕을 기도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기시지 않기를, 그런 이해를 바랍니다. 나의 하얀 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뛰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개와 사람이 달리 놓여있지 않다고, 종(種)의 차이란 그저 생물학의 분류일 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의 늙은 개는 저를 하느님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모집 >

주제: "이 눈에 빛을 주소서"(시편 13,3)

- 일시: 2026년 2월 2일 ~ 13일 (11박 12일)
- 순례지: 터키(성 바오로와 초기교회 유적지)
그리스(성 바오로 선교 여정지)
- 영적 지도: 이윽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총 비용: \$ 3,950 + 공동경비 \$ 150